"내년 돼지사육농가 25% 적자경영"

■농촌경제연 보고서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늘어 수요 위축

곡물가 급등 여파 사료값 10% 뛸땐 소득 48%↓

내년 LA갈비 수입 등으로 돼지가격이 더 떨어지고 국제 곡물가 강세에 따른 사료값 인상까지 이어지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국내 돼지농가의 소득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 네 농가 가운데 하나 꼴로 경영한계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촌경제연구소는 29일 '사육여건 변화가 양돈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돼지사육 농가소득(수입-경영비)이 산지가격 1% 하락과 사료가격 1% 상승에 각각 2.5%, 2.3% 감소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평균 산지 돼지가격은 20만원(100kg)선으로 올해보다 10%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공급 측면에서 국내 돼지 출하두수가 2~3% 증가하는 반면, 미국산 갈비를 비롯한 쇠고기 수입증가(36% 추정)로 대체제인 돼지고기 수요는 오히려 위축되기 때문이다.

사료비의 경우 양돈용 배합사료의 57%를 차지하는 옥수수 가격 강세에 해상운임 상승까지 겹쳐 올해 18% 오른데 이어 내년에도 7.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 곡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가팔라 사료비가 각각 10%, 15% 뛸 경우 내년 돼지농가의 소득 감소율은 각각 48%, 56%에 이를 전망이다. 이 경우 적자농가 비율도 각각 27%, 31%까지 높아진다.

상황이 더욱 나빠져 만약 내년 사료비가 42% 폭등하면 전체 돼지농가의 평균 소득은 '0'이 된다. 국내 양돈업계가 수익성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부담 증가로 돼지농가는 네 농가 당 한 농가 꼴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게 농촌경제연구소의 전망이다.

이런 전망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전남의 경우 1천488 돼지농가(사육두수 91만6천마리) 가운데 370여 농가가 적자로 전락할 공산이 커졌다.

화순에서 3천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A모(56)씨는 "내년 돼지가격이 10% 떨어지는 동시에 사료비가 7% 오르면, 사육농가의 돼지 100kg당 소득은 3만9천309원으로 올해의 5만4천131원(추정치)보다 43%나 줄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경영비가 수입을 넘는 돼지농가의 비율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내년 양돈환경이 더 나빠지면 사육 마리 수가 500마리 미만인 농가를 중심으로 양돈을 포기하고 전업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뉴 그랜버드'가 29일 서울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차발표회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차광주공장 제공〉

기아차 대형버스 '뉴 그랜버드' 출시

기아자동차가 국내 고급 대형버스의 간판격인 그랜버드 버스의 새 모델인 '뉴 그랜버드'를 29일 출시했다.

기아차는 이날 서울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기아차 이광우 국내 영업본부장 등 회사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 그랜버드' 신차발표회를 갖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뉴 그랜버드' 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깔끔함과 세련미로 무장한 미래지향적 디자인 ▲새롭게 개발한 고성능, 친환경 엔진 탑재 등이다.

'뉴 그랜버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시장조사와 실용성 클리닉 등이 실시됐으며, 개발비로 3년간 500여억원이 투입됐다.

기아차는 다음달 3~10일 광주·부산·대구 등 전국 6개 대도시에서 지역별 신차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해 판매붐을 일으킬 계획이다. 가격은 1억1천485만원~1억6천만원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림 예산 5% R&D에 쓴다

〈연구개발〉

한미 FTA대비 생명·나노 기술사업 등에 적용

연구성과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연구노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내년부터 국가 R&D사업에 적용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 R&D의 비중이 전체 농림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림 R&D 활성화 방안'과 '국가 R&D사업 연구노트 활성화방안' 등 5개 안을 상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 등으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 R&D 투자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체 농림예산 대비 농림R&D 예산 비중을 2007년 3.5%(4천933억원)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생명기술(BT)과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업의 기술집약, 첨단산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연구노트 작성방법과 유지·관리에 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한 '국가 R&D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과기부 훈령으로 제정, 내년부터 국가R&D사업 수행기관에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연구노트에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 후속연구는 물론 연구 관련 분쟁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연구노트 및 작성사례를 보급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상의, 후임회장 선출 난항

후보단일화 중재 안돼… 또 1주일 연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 단일화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9일 광주상의 회의실에서 상임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박흥석(62) ㈜럭키산업 대표와 이승기(56) 삼능건설㈜ 대표 등 두 후보를 대상으로 최근 후보단일화 중재에 나섰던 중재단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김성산 광주상의 부회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중재단은 최근 10여일간 후보 단일화를 위한 중재에 나섰으나 박흥석 후보의 해외 체류 등 여러 문제로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다.

상임의원회는 그러나 두 후보가 다음주 중 서로 만나 후보단일화 의견을 나누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다는 중재단의 설명에 따라 후보 당사자끼리 후보단일화 결단을 내릴수 있도록 다음주 말까지 말미를 주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다음주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후 계획은 그때 가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원자재값 상승이 최대 경영 걸림돌"

광주·전남 제조업체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을, 비제조업체는 내수 부진을 경영상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5~23일까지 지역 내 3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애로 요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의 경우 31.7%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3.7%), 내수 부진(9.6%), 환율 하락(7.1%) 등의 순이었다.

전달에 비해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은 7.9%포인트, 환율 하락은 2.0%포인트 각각 증가한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은 응답률이 6.6%, 3.7%, 2.9%포인트씩 감소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게임·음악·영화·방송영상 등 문화산업 이끌 인력 양성 필요"

광주·전남 고용포럼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장단기 프로젝트를 추진,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 주최로 호남대 광산캠퍼스에서 열린 '제 11차 광주·전남 고용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택희(호남대 IT·CT 인력양성사업단장)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광주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문화수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 육성 중심기능을 확보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신설예정 지원기관을 광주에 유치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특히 문화산업의 핵심콘텐츠인 게임·영화·음악·방송영상산업 등 4개 분야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면서 "분산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면 지역대학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과 기업의 특성화 영역을 고려, 지역인력 인프라 예측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또 이 교수는 문화산업 육성에 따른 프로젝트 제작지원을 통해 배출인력을 산업체에 고용하고,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CGI(Computer Generated Image)사업 인큐베이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금강제화 내달 9일까지 '겨울 세일'

금강제화 겨울 정기세일이 지난 28일 시작돼 오는 12월 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세일은 전국 금강제화, 랜드로바, 레노바, 버팔로 매장에서 진행되며, 세일기간 남녀 정장구두를 비롯, 캐주얼화, 레저화, 골프화 등을 20% 할인 판매한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이번 세일기간에는 짧은 부츠 '부티'와 남성 부츠 '처카' 등 올 겨울 최고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트렌드를 반영한 핸드백, 스니커즈, 캐주얼화 등 다양한 제품을 구비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